

‘불혹의 해결사’ KIA 최형우, 올스타전 최고령 MVP

프로 22년 만에 ‘미스터 올스타’ 결승 솔로홈런 포함 3안타 2타점 나눴다. 올스타의 4-2 승리 이끌어 나성범 우수수비상·박찬호 2안타 장현식·최지민·전상현 무실점 투구 김도영 ‘선재업고 튀어’ 퍼포먼스

‘불혹의 해결사’ KIA타이거즈 최형우(41)가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별 중의 별’로 뽑히며 올스타전 최고령 MVP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

최형우는 지난 6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서 나눴다. 올스타(KIA·LG 트윈스·NC 다이노스·한화 이글스·키움 히어로즈)의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팬·선수단 투표 합산 34.45점을 얻어 나눴다. 올스타 지명타자 부문 1위로 베스트 12에 선정되며 올해로 7번째 올스타전에 참가한 최형우는 첫 타석부터 해결사 본능을 발휘했다.

0-0으로 맞선 2회초 어린 두 자녀에게 받은 배트와 헬멧을 쓰고 첫 타석에 선 최형우는 드림팀 김민(KT)의 초구 직구를 통타, 125m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선제 홈런포를 터트렸다.

3-0으로 앞선 3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들어선 두 번째 타석에서도 윌리엄 쿠에바스(KT)의 2구째 슬라이더를 당겨쳐 우전 2루타를 때렸다.

6회초 세 번째 타석에선 선두타자로 나서 문승원(SSG)에 삼진을 당했으나 3-2로 근소하게 앞선 8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



KIA 최형우가 지난 6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 KBO 올스타전에서 4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하며 MVP에 뽑힌 뒤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1사 2루에서 김택연(두산)의 2구째 슬라이더를 때려 우전 적시타로 2타점째를 수확했다.

결승타와 썬기타 포함 3안타로 맹활약하며 나눴다. 올스타의 4-2 승리를 이끈 최형우는 기자단 MVP 투표에서 21표 중 19표를



KIA 김도영이 지난 6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 KBO 올스타전에서 1회초 이벤트 복장으로 타석에 들어서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얻어 2표를 받은 오스틴 딘(LG)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MVP에 뽑혔다.

40세 6개월 20일의 나이로 올스타 MVP에 오른 최형우는 2011년 이병규(현 삼성 2군 감독·당시 36세 8개월 28일)를 제치고 올스타전 최고령 MVP 기록도 세웠다. 그는 상금 100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KIA ‘캡틴’ 나성범은 몸을 아끼지 않는 호수비로 우수 수비상을 받았다.

나성범은 이날 5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에 그쳤지만 4회말 장성우(KT)의 홈런성 타구를 쫓아가 점프 캐칭하며 잡아내는 수비를 펼쳤다.

KIA 박찬호는 9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로 나눴다. 올스타전에 기여했

다.

KIA 투수들은 무실점 투구로 홀드를 챙기며 팀 승리를 지켰다. 장현식은 5회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최지민은 6회말 등판해 0.1이닝 1볼넷 무실점을, 전상현은 8회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무실점을 각각 기록했다.

KIA 김도영은 생애 첫 올스타전에서 인기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주인공으로 분장해 팬들의 많은 환호를 이끌었다.

김도영은 1번 3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로 아쉬운 활약을 펼쳤으나 1회초 인기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패러디한 교복 차림에 파란 우산을 들고 선두타자로 나서 팬들을 즐겁게 했다.

이어 드림팀 선발 원태인을 상대로 2루타를 치고 나간 뒤에는 ‘도영이는 니(팬분들)따미 살아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품에서 꺼내 들고 활짝 펼쳐 보이는 세리모니를 하며 팬들의 응원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김도영은 전날 열린 홈런 더비에도 참여해 예선전에서 홈런 4개로 같은 기록을 낸 오스틴 딘(LG)과 서든 데스 대결 끝에 결승 진출해 실패했다.

올스타전 최다 득표자 정해영은 부상 탓에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4회초 아버지 정희열 감독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포수 마스크를 쓴 채 3루 코치 박스에 등장해 주루 코치 역할을 하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2015년부터 드림·나눔팀으로 진행된 7차례 올스타전(2020, 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미개최)에서 드림팀이 4승 3패로 앞서 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사진)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 감독을 내정했다.

축구협회는 7일 “축구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에 홍명보 울산 감독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표팀을 이끌면서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던 홍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하게 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를 통해 “이 이사가 외국인 감독들을 면담한 이후



에 홍 감독과도 면담했다”며 “(홍) 감독님도 시간이 걸렸지만 (제안을) 받아들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정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해서) 바로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약 협상을 해야 한다. (계약 관련) 논의가 오갔고, 거의 이제 (합의점을) 맞췄으니까 (홍) 감독 내정을” 발표했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정한 거고 (홍) 감독님도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광주시청 육상 김태호, 시즌 첫 100m 금메달

백제왕도 익산 전국육상대회

광주시청 김태호(31·사진)가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시즌 첫 100m 우승을 차지했다.

김태호는 7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37을 기록, 이용문(서천군청·10초45)과 오승우(서울시청·10초49)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상반기 육상 국가대표팀에 차출돼



국내 대회를 많이 뛰지 못했던 김태호는 이날 앞바람(-1.5m)을 안고 뛰는 악조건 속에서도 시즌 첫 금메달을 획득하며 하반기 활약을

예고했다.

김태호는 특히 지난달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에서 우승하는 등 올시즌 100m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용문을 2위로 밀어내고 우승하며 단거리 정장 실력을 재확인했다.

최동환 기자

‘스완지시티 이적’ 광주FC 엄지성, 팬들과의 마지막 인사

강기정 시장·팬 200여명 참석 “다시 돌아와 팬 사랑에 보답”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을 확정된 ‘광주 로컬보이’ 엄지성이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프로축구 광주FC는 지난 5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엄지성의 환송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유럽 이적을 하게 된 엄지성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해외 무대에서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송회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광주 FC 팬 200명을 비롯해 강기정 구단주, 노동일 대표이사, 이정호 감독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환송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엄지성의 인사를 시작으로 기념 영상 시청, 꽃다발 및 롤링페이퍼 전달식을 비롯해 팬들과의 질의응답, 애장품 경품 추첨 및 팬사인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엄지성은 “팬들의 응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해외에서 광주를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언젠가 광주로 꼭 다시 돌아와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주FC 구단주 강



광주FC 엄지성이 지난 5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환송회에 참석, 강기정 광주시장, 노동일 대표이사, 이정호 감독, 서포터스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기정 시장은 “엄지성 선수가 다치지 않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이 자리에 와주신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엄지성 선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동일 대표이사도 “엄지성 선수가 부상 없이 활약하며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엄지성 선수를 향한 팬들의 애정없는 성원 부탁드린다”며 덕담을 건넸다.

이정호 감독은 “엄지성 선수의 이적을 허락한 강기정 구단주와 노동일 대표이사에게 감사하다”며 “스완지시티의 경기를 직접 봤는데 엄지성이 좋은 팀으로 가는 것 같아 안심됐다. 엄지성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응원할 것이니 팬들은 광주FC를 더욱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지성의 은사인 광주

FC U18 금호고 최수용 감독과 광주FC U18 소속 이태경도 참석해 엄지성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엄지성의 금호고 재학 시절 유니폼을 직접 들고 온 최수용 감독은 “고등학교 때부터 엄지성 선수는 훌륭한 선수였고 더 큰 선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니폼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엄지성의 사인을 받기 위해 오늘 유니폼을 들고 왔고 이제는 한 명의 팬으로서 엄지성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2부 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은 후, 친필 사인 유니폼, 실착 축구화 등 엄지성의 애장품을 추첨을 통해 팬들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 뒤 팬사인회를 마지막으로 환송회를 마무리했다.

한규빈 기자